



# 충남의 Color Village? 계룡 삼채피망청정마을!

정봉희 | 충남발전연구원 홍보팀장



충청남도  
마을기행





[편집자 주] 충남 계룡시 영서면 광석리에는 '계룡 쌈채  
피망청정마을'이 자리잡고 있다. 일명 '광석마을'이라고도  
불리는데, 마을 이름이 뭔가 호기심도 불러일으키면서 색다른 느낌이  
들었다. 알고 보니 계룡시에서 하나밖에 없는 정보화마을이라고 한다.

이번 여름호에서는 지난 5월 말에 이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문향심 팀장을 직접  
찾아가 나눈 인터뷰 내용을 실고자 한다. 정보화마을의 현황 주소와 방향, 그리고 마을의 가  
치를 조금이나마 되새겨볼 수 있는 자리였다. 그런데 왜 위원장이 아니고 팀장이냐구요?  
그건 이 글을 끝까지 읽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 쌈채피망청정마을! 이름이 참 재밌고 특색이 있는데...

옛날 마을 한복판에 넓은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농번기에 일을 하다가 점  
심이나 새때에 둘러 앉아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마을 이름은 '나분들'이라 불렸다고, 그 후 '광석(廣石, 넓은 돌)'으로, 다시  
'광석(光石, 빛나는 돌)'로 바뀌어 부르게 되었다고 하네요. 지금도 마을입구  
에 있는 100년된 느티나무 밑에 넓은 돌이 있어요.

쌈채피망청정마을은 지난 2007년도에 정보화마을 신청할 당시 태어난 이름  
인데, 계룡의 대표적 이름이 뭘까 고민하다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정작 본  
인은 나중에 일을 시작해서 정확한 내막을 모른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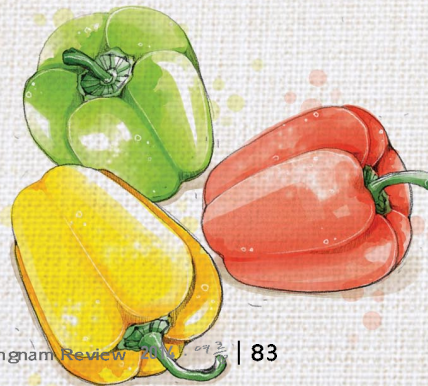
(인터뷰 중인 문향심 팀장님)

### 마을 현황은?

광석마을은 총 40여가구 약60명이 살고 있고, 정보화마을 회원은 12가구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요. 방문객 체험이 있으면 함께 일을 나누어 진행하고, 필요한 교육도 듣고 공유하게 되죠. 비록 회원  
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체험행사가 있는 날이면 나오셔서 도와주시거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이  
한 점은 남성회원은 위원장 남편 한 명 뿐이라는 거.

### 정보화마을 지정, 그리고 사업은 어땠는지?

처음 2011년도에 이곳에 들어와서 사업을 꾸려나가려고 하니 회원간  
모이는 일도 없고 체험은 감자와 딸기가 전부더군요. 2007년 정보화마  
음으로 지정된 이후 사실상 퇴출 위기에 처해져 있었던 게 사실이었구요.







그냥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다고 하네요.

2010년도까지 다른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의 위원장님이 '같이 일해보자'고 꺾는 바람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교육 받고 조언도 구하며 마을사업을 만들어갔어요. 그러다가 2012년부터는 마을주민들과 함께 마인드교육도 가지면서 나온 얘기가 '우리 마을엔 색깔이 없어' '그럼 우리가 색깔을 만들까요?' 해서 잡은 컨셉이 바로 "색깔"이 된 것입니다.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 건 2012년부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색깔 입히는 작업, 즉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시기는 올해까지 진행될 꺼고... 내년부터는 1년 사계절 색깔있는 마을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



### 여기서 잠깐! 팀장님을 꺾인 위원장님이 누구신지 궁금해요!

송무선 위원장이구요. 아~ 여자분이세요. ^^ 이 마을 토박이시고 어느 누구보다 마을에 애착이 많으시고 추진력도 정말 좋아요. 2010년도에 본격적으로 마을사업을 시작하시더니 그 뒤에 저를 데리고 오셨죠! 이곳 정보화마을 건물도 위원장님이 버섯농사 지었던 부지에 공짜로 사용하게 해서 지은 거랍니다. 부족한 게 많은데 많은 일들을 위임해주셔서 어찌다보니 제가 위원장님을 '배후조정' (?)하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하하하)



마을 들어가는 입구의 모습



마을 바로 옆으로 호남선이 지나간다



마을에 붙은 체험행사 현수막

이곳이 고향인 위원장님과는 달리 저는 이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진도가 고향이에요. 팽목항이 눈감고도 그려지니까 더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은 이 마을이 저의 제2의 고향이 되었죠. 마을에 민집이 생기면 들어와 살고 싶은 생각이랍니다.



## 🍏 지금도 계속 체험객이 많이 오는지?

2013년도 말 기준으로 약3,000명이 다녀갔죠. 연간 매출은 약 3,200만 원 정도. 물론 잘 나간다는 여타 체험마을에 비하면 ‘새발의 피’이지만 4년 전 500명, 매출 600만 원보다는 많이 증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을엔 체험장이 별도로 없어요. 괜히 사업도 안 되는데 건물만 짓기 싫었거든요. 마을의 콘텐츠가 건물의 용도를 좌지우지하는 게 맞지 않나요? 건물 지어놓고 콘텐츠를 구상하는 건 좀 아닌 거 같아요!

지난해에는 도농교류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컬러푸드! 힐링을 말하다 시리즈’를 추진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구요. 올해는 1억 원의 3농혁신특화사업에 선정되어 “컬러! 마을을 물들이다”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체험장이 하나 생겼으면 하는 바람인데, 날씨 영향을 많이 받다보니 슬슬 욕심이 생기더라구요! 체험하는 날에 비라도 온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하늘에 기도 좀 해라! 비오지 말라고~’ 이러시거든요.



〈마을 뒤편에 자리잡은 동상〉



〈그늘에서 잠시 쉬고 계신 마을주민〉



〈대부분의 마을 담벼락엔 이렇게 다양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





## 그럼 마을의 체험프로그램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가장 인기 있는 체험프로그램은 ‘컬러푸드, 힐링을 말하다’ 시리즈와 딸기따기 체험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을만의 특색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보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답니다.

우리는 각 계절별 드레스 코드가 있는데, 계절에 맞는 의상색을 맞춰 입는거죠. 봄은 녹색, 여름은 빨강, 가을은 노랑, 겨울은 흰색입니다. 그래서 여름은 ‘체험! 빨강에 미치다’, ‘컬러푸드 힐링을 말하다-레드’, 가을은 ‘사랑, 에너지 옐로우’, 겨울은 ‘체험, 화이트에 미끄러지다’ 등으로 프로그램을 지정했죠. 다만 아직 봄은 콘텐츠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여서 올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색깔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들 - 출처 : 마을 홈페이지〉



물론 상시로 운영되는 다양한 컬러푸드 체험도 있는데, 피망이나 상추, 고추와 딸기따기 체험, 고구마와 감자 캐기, 포도와 가지 수확 등은 계절별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하루코스 체험프로그램만 진행하고 있는데 1인당 25,000원입니다. 1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갖추지 못했지만 준비하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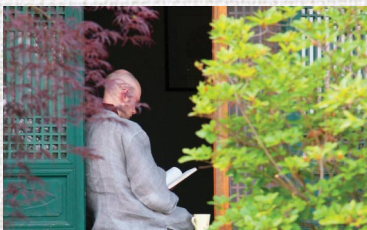
**#컬러푸드(Color Food)란?** 조화로운 식생활과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건강식품. 예를 들면 노화를 예방하는 검은색 식품(검은콩, 검은깨, 검은쌀, 메밀 등), 면역력과 항암 효과를 높이는 주황색 식품(당근, 호박, 고구마, 감 등), 혈관과 위장을 깨끗하게 하는 초록색 식품(녹차, 부추, 브로콜리, 솔잎 등),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하얀색 식품(마늘, 양파, 콩, 흰 채소), 심장병 예방과 독소를 제거하는 보라색 식품(포도, 자두, 블루베리, 가지 등), 피부가 좋아지는 노란색 식품(오렌지, 옥수수, 자몽 등), 예뻐지는 빨간색 식품(토마토, 사과, 석류, 고추 등)이 있다.(체험행사를 진행하면서 틈틈이 컬러푸드 해설과 교육도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한다)



### 다른 체험프로그램 중에 특이한 게 있다면?

이 마을에서 10분만 이동하면 향적산 아래 무상사라는 절이 있는데, 여기를 견학하는 거죠. 무상사는 여느 절과 달리 외국인 승려와 수녀 등의 수행과 참선이 이루어지는 국제선원입니다. 일명 ‘푸른 눈의 스님’이 모여있는 곳이지요.

2000년에 창건된 무상사에는 현재 미국에서 온 ‘대봉스님’이 머물러 계시다고 합니다. 무상사 역사의 개척자라고들 한답니다.(필자의 호기심에 인터뷰 후 직접 찾아가 보았다. 우리가 아는 보통 절인데... 외국인 승려만 보여서 사실 신기하기도 했다. 무상사 홈페이지 [www.musangsa.org](http://www.musangsa.org) 참조)



〈무상사 푸른눈의 스님〉



〈무상사 대웅전〉





## 체험객들의 만족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더 다양한 마케팅전략은?

물론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시간이 흐르다보니 단골 방문객(단체)도 늘었고요. '언제 또 하나 며 궁금해하시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홍보를 너무 많이 해도 사실 걱정이긴 해요. 마을에서 그만큼 수용하지 못하는데 무작정 오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요. 일단은 지역의 단체들을 대상으로 가장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인터넷(소셜미디어, 블로그,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욕심내서 추진하고픈 사업이 있다면?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올해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3농혁신 특화사업에 뽑혔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해요. 궁극적으로 마을주민들과 하고 싶은 사업은 국내 유일의 색깔있는 마을(Color Village)을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색깔있는 길(Color Road)에도 욕심이 나더라고요. 벚꽃나무를 심을까 상수리나무를 심을까 고민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업들도 마을주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가능하겠더라고요. 저는 마을을 이끄는 리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는 그들의 삶의 속도를 추월하고 싶지 않을 뿐이죠. 마을주민들이 색깔이 없는데 색깔있는 마을이 될 수 없잖아요. 조금 앞서 간다고 치면... 딱 반발짝 정도! 그게 좋겠어요.

## 혹시 이 마을은 배우고 싶다... 또는 부럽다 하는 마을이 충남에 있다면?

마을도 좋지만 저는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제 멘토이기도 한 홍성 용봉산체험마을의 엄기화 선생님, 그리고 아산에서 3개의 정보화마을을 맡고 계신 김금숙 선생님. 마을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존경합니다. 우리 마을에서도 마을주민과 모녀지간처럼 살갑게 지내면서 모두가 하나의 가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을정보센터의 모습〉







## 시골 마을의 특성상 체험프로그램과 농산물판매 등이 주요 매출이 아닐까 하는데?

여기는 다들 소농이기 때문에 매출을 올려서 돈을 번다는 생각은 사실 못해요. 전자상거래로 할 수 있는 특산물도 한정되어 있어서 팔 것이 없을 때에는 계룡에서 유명하다는 엿도 판매하고 있긴 해요. 이것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농촌다움을 간직한 스토리텔링과 체험 콘텐츠가 더 매력적이라는 거죠. 색깔에 목숨을 거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구요.



## “쌈채피망청정마을은 000이다?!”

계룡 쌈채피망청정마을은 색깔있고 성깔있고 맛깔나는 ‘Color Village’ 다!

사실 대한민국 농촌마을은 어디나 대부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의 색, 이야기, 독특한 가치 등을 찾고자 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문화이고 색깔이지 않나 하는 거죠.

또한 무엇도 아닌 것이 무엇(Color Village)이 되어가는 과정속에 마을주민들과 도시민, 그리고 관계기관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부러 색칠하는 곳이 아닌 서서히 스스로 물들어가듯 마을을 색깔로 물들이고 싶습니다.

좋은 농촌마을들 많아졌어요. 그중에 우리 마을도 있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즐겨찾기 해주세요. 늘 준비하고 노력하는 마을이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찾아가는 길

▶ 주소 : 충남 계룡시 엄사면 광석항한길 43-8

▶ 홈페이지 : <http://pm.invil.org/> (T.042-841-0074)



1. **기차로 오게 되면...** 계룡역에서 내려야 한다.
2. **승용차를 타면...** 호남고속도로 계룡IC로 빠져 나와 노산국도를 타고 계룡시 문예화관을 지나 광석리로 들어가면 된다. 인근 지역에서도 국도로 이동해 찾아가기 어렵지 않다(사실... 내비게이션 찍으면 끝!)

